

주일예배

오전10:00

사회: 이상부장로

(*) 표시는 일어섭니다.

찬 양	한중사랑교회 찬양팀 / 다같이
*목상기도	사회자
*사도신경	다같이
찬 양	찬송가 64장 / 다같이
대표기도	양기화 집사
성경봉독	빌립보서 4장 4절 / 사회자
설 교	“항상 기뻐하라” 조항주 목사
찬 양	복음송(주 예수 사랑기쁨) / 다같이
합심기도	다같이
특 송	교구장 특별순서
헌 금	찬송가 50장 / 다같이
헌금기도	서영희 목사
*찬 양	부흥(이 땅의 황무함) / 다같이
*축 도	서영희 목사
성도의 교제	스승의 주일 행사 / 통지 / 새신자 환영

봉사안내

	5월 20일	5월 27일	6월 3일	6월 10일
봉사	1대4지역	1대5지역	1대6지역	1대7지역
특송	교구장	특별팀	1대4지역	1대5지역
사회	이상부장로	조항주목사	이상부장로	김학수목사
기도	양기화집사	황화련집사	최순덕집사	신순덕집사

수요예배, 토요성경공부

수요예배	찬양:남승명 설교: 김 성 <본문 고후7:9~10>
토요모임	찬양:김학수 반별성경학습
백두산모임	매주수요일 오전10시 인도: 김성 목사
주바라기모임	매주목요일 오전10시 인도: 임홍 전도사

임송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알림

◎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

※ 무명을 제외한 주일,감사,침일조,절기,기타헌금의 명단이 주보에 기재됩니다.
 □ 침일조: 권영란,김미주(진후,지원),김선희2,김선희6,김영옥16,김영옥8,김영희8,김인옥3,김창결,김해월1,남영현,노영숙,서길자1,손명도(김연화),안봉여,양홍길,유옥자,이관숙,이매화,이춘련,이춘자10,장복녀,정숙순,채영금,채영옥,최광준1,최금자2,한경철,한보옥,한춘화1,황옥화,무명1
 □ 감사헌금: 강경실,강미자,강중술,강춘자5,권영순,권용(배혜숙),권태영2,김경철,김미자,김선희2,김성,김성도2,김성숙,김승옥,김영옥8,김영희8,김옥분8,김용덕2,김정환(최정),김중식,김중옥,김춘매1,김중정,남승명(배태숙),남홍자(달원),류창해,박복순,박복희2,박성옥3,박성호2,박순옥4,박정해,서영희목사,석순옥2,성순임,안순자3,양혜선,염상부,원금순,원동일,유금선2,유석기,유석립,유옥자,유용녀,유월선,윤기현,이상부,이수완,이순희1,이영자1,이영화6,이점수1,이종필,이준심,이환철,임경애,임남순,임복순,임영애,임홍,장영순3,장혜자,전근선,전룡수(최순덕),정금선2,정복순2,정옥순4,조영애1,조경숙1,주혁준1,차춘복,채규범(박성업),채영금,채영옥,채영주,최성호2,최순화,최옥금,최옥진,최차남,최혜숙,탁금순,하용범,한순금1,한홍룡,허옥진,황금선1,황보국,무명2
 □ 선교헌금: 강은혜 □ 기타헌금: 황미옥
 □ 건축헌금: 김일3,김창결,임정화,임채근,조영애1,최성호2,최정열
 □ 후원(일반): 강송란,이옥교,무명1
 □ 후원(약값): 김성녀,박영순1,손명도(김연화),안봉여,무명2

◎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간증) “목사님 감사합니다” -박성옥-

우선 한중사랑교회를 섬기는 서영희 담임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느날, 한중사랑교회에서 담임목사님과 조항주 목사님, 그 외 한분이 집으로 심방을 오셨습니다. 이날 목사님은 저에게 주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강조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저의 영적인 눈을 크게 뜨게 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귀중한 선물임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 글을 쓰면서도 주님에 대한 감사의 눈물로 적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병으로 인해 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여유롭습니다. 담임목사님이 다녀가신 이튿날부터 성경책을 펼쳐 놓고 노트에 적으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전에는 한토막 한토막 읽던 것이 이제는 창세기부터 읽으면서 누가복음, 마태복음 읽고 가끔 시편도 읽고, 요한복음도 읽고 있습니다. 그 후로 머릿속에 변화가 왔습니다. 차츰 하나님을 믿어지는 것 같아요. 재미있어요. 어떤거냐면 하나님은 항상 제 곁에 계셨으나 저의 믿음이 약한 것을 알게 되었고, 성경 말씀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로부터 자유롭고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구나. 이것이 은혜구나... 제가 그날 이런 일이 없었다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해적이 탄 배같이 큰 바다로 가서 영원히 헤어 나오지 못할지 모릅니다. 비록 저와 다른 목사님, 교구장, 집사님, 그 외 간사님들에게는 하찮은 일이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크나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성경에 재미를 느꼈습니다. 찬송가도 자주 부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광명의 길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줄석연왕

지역	교구	6월	13일	지역	교구
1-01	101	8	8	2-07	21
	102	6	10		21
1-02	103	9	8	2-08	21
	104	3	6		21
	105	3	4		21
1-03	106	7	5	2-09	21
	107	5	7		22
	108	7	5		22
	109	7	4	2-10	22
1-04	110	7	6		22
	111	2	8	2-11	22
	112	13	14		22
1-05	113	8	11	2-12	22
	114	6	10		22
	115	3	6	2-13	22
1-06	116	4	5		22
	117	2	3	2-14	23
	118	4	3		23
	119	6	5	2-15	23
1-07	120	5	6	2대 수	30
	121	7	8		30
	122	7	8	3-01	30
1-08	123	8	6		30
	124	4	3		30
	125	9	11	3-02	30
	126	6	6		30
1-09	127	7	8	3-03	30
	128	6	6		30
	129	5	4		31
1-10	130	6	5		31
	131	6	7	3-04	31
	132	6	7		31
1-11	133	4	5		31
	134	8	8	3-05	31
	135	7	6		31
1-12	136	6	7	3-06	31
	137	8	6		31
1-13	138	7	2	3-07	31
	1대 수	232	247		31
2-01	201	12	10		32
	202	12	7		40
2-02	203	8	6	4-01	40
	204	8	11		40
2-03	205	4	8	4-02	41
	206	9	8	3,4대 수	41
	207	9	5		41
2-04	208	10	13	어린이	41
	209	8	9	새신자	41
2-05	210	9	5	미확인	41
	211	8	9	수	41
2-06	212	7	4	총계	41
	213	3	4		41